

이낙연, 대선주자 선호도 29.9%...최고치 경신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대선주자 선호도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20%선에서 정체하던 지지도가

안철수 4위로 '경총' 황교안 20%대 무너져 범진보vs범보수 격차↓

10%대 중후반으로 하락했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7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1개월전 지난해 12월 대비 0.5%포인트(p) 오른 29.9%로 4개월 연속 상승하며 30%선에 근접했다.

리얼미터는 이 전 총리가 이번엔 선호도 최고치를 또 경신하며 8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호남과 부산, 울산, 경남, 충청권, 50대와 40대, 20대, 60대 이상 진보층, 바른미래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상승한 반면, 서울과 대구, 경북(TK), 30대, 보수층, 정의당과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p내린 17.7%로 7개월 연속 20%선 전후에서 횡보했던 선호도가 10%대 중후반으로 떨어졌으나 2위는 유지했다. 이 전 총리와 격차는 9.3%p에서 12.2%p로 벌어졌다.

황 대표는 대구·경북(TK)과 호남, 경기, 인천, 충청권, 60대 이상과 50대, 30대, 20대, 40대, 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전 대표는 4.7%로 직전달 대비 1.4%p가 올라 7위에서 4위로 세 계단 점프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4.4%로 직전달 4위에서 한 계단 내려간 5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만에 상승세가 멈추며 5%대로 떨어졌으나 직전달에 이어 3위를 유지했다. 지지도는 5.6%다.

이밖에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 3.8%, 심상정 정의당 대표 3.7%, 오세훈 전 서울시장 3.7%, 김원순 서울시장 2.9%, 김경수 경남도지사 2.5%,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2.3% 등을 기록했다.

이 전 총리와 심 대표, 이 지사, 박 시장 등 범진보·여권 주자군의 선호도 합계는 47.8%로 직전달 대

비 2.0%p 하락, 황 대표, 안 전 대표, 홍 전 대표, 유 대표 등 범보수·야권 주자군의 선호도는 37.9%로 같은 기간 0.1%p 하락했다. 양진영 간 격차는 11.8%p에서 9.9%p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5만1174명에게 접촉해 최종 2511명이 응답을 완료, 4.9%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윤호 기자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4.15총선 종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저의 종로 출마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파들이 하나로 뭉칠 것을 제안합니다" 라고 말했다.

친박 이정현 종로 출마

"문재인 정권 끝장내야"

"모든 정파 뭉칠 것 제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대표를 지낸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4·15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의 종로 출마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파가 하나로 뭉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권력의 사유화, 국민권 가르기, 후대의 미래 훔치기 등 좌편향 운동권 집권 세력을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밖에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좌편향 급진 집권세력의 장기 집권전략을 무수기 위해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미래 세대가 주인공이 돼야 하는 공간으로 저는 그 젊은이들의 서포터, 가이드 역할을 하겠다"며 "밀바닥부터 시작해 17계단을 거쳐 올라가면서 경험한 경륜을 미래 세대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바치겠다"고 말했다.

구용상 전 민주정의당 의원의 수행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이 의원은 민주정의당 당직자로 입사,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내다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2016년에는 전남 곡성·순천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순천에서 당선돼 3선 고지를 밟았다.

뉴스1

민주, 단수 지역 적합도 조사 키로

하위 20% 공개효과도

더불어민주당이 4일 현역의원 단수공천신청 지역에 후보자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이들 지역도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에서 (현역의원) 단수(공천신청) 지역도 적합도 조사를 한다고 한다"며 "단수(공천신청) 지역 중 하위 20%가 포함된 경우 좀 더 정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마감한 민주당 지역구 후보자 공모에서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 109명 중 경쟁자가 없는 단수 후보자가 64명에 달하자 대대적 물갈이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단수공천신청지역에 대해서도 적합도조사를 실시할 경우 하위 20%에 속했으면서도 단수신청을 한 지역구 의원에 대한 정밀검증이 가능해져 일부 지역의 경우 공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의원의 지역구에 4·15 총선을 앞두고 입당한 '영입인재'를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하위 20% 개별통보에도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없자 후보자 적합도 조사와 영입인재 배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물갈이 효과'를 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하위 20% 공개의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저희가 당 지도부의 방침상 하위 20%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입인재들의 총선 배치와 관련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분들을 대략 여론조사 적합도와 면접을 거쳐게 될텐데 그 타이밍에 인재 영입된 분들도 4가지 경로에 맞춰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4가지 경로로 비례대표 전략공천, 비례대표 경선, 지역구 전략공천, 지역구 경선이고 굳이 5가지로 치자면 불출마해서 다른 영역에서 기여하신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신당' 가장 효과적"

총선 임박한 상황에서 최대 홍보 효과 "정치로 강남빌딩 사려는 사람 안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창당할 신당 명칭이 '안철수신당'이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4·15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신당의 이미지가 최대한 홍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철근 전 국민의당 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안 전 대표의 신당 관련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창당 과정에서 기칭 '안철수신당'을 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칭이 정식명칭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전 대변인은 "동상 창당과정에서 기칭을 쓰고 그 기칭이 실제로 굳어지기도 하고 중간에 바뀌기도 하지 않느냐"며 "안 전 대표도 '안철수신당'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단 말을 했다"고 말했다.

창당추진기획단은 오는 9일 1차 발기인 대회를 열 예정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창당할 신당의 기본 가치에 대해 "한 마디로 공익을 위한 봉사"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를 통해 강남 빌딩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를 해서는 안되듯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꼭 필요한 것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단 한 가지는 바로 '공공성의 회복'이다"라고 말했다.

신당 기초에 대해서는 "정당 규모와 국고보조금을 50%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작지만 더 큰 정당을 만들겠다"며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지금의 정당 구조를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4·15 총선을 통한 21대 국회에서 △국고지원금 사용 세부내역 △입법추진 및 통과실적

△예산결산 심사실적 △국민 편의 정책개발 및 정치사업 실적 등을 공개해 정당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일하는 정당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임위, 소위원회 자동개회의 법제화 △국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국회의원 출결상황 공개, 무단 결석 제재 △소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 △예산결산특별위의 상설화 △패스트트랙 남용 방지 등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야 할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